

'자율주행 실증' 민간단체 참여한다

광주광역시, 국토부·경찰청등 민관협업체 맞닥뜨려 시민안전·이해관계등 다양한 문제 해결방안 모색

국내 최초 도시 단위 자율주행 실증사업을 펼치는 광주광역시가 자율주행 실증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자율주행 실증도시 협의회'를 운영한다.

시는 국토교통부, 광주경찰청, 광주수방안전본부, 각 자치구 교통과, 자동차안전연구원, 한국도로교통공단, 모범안전자협회, 녹색어머니연합회, 광주어린이안전학교, 광주교통방송, 광주전남기차협회 등이 참여한 '자율주행 실증도시 협의회'를 구성, 6일 출범식과 함께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자율주행 실증도시 협의회'는 자율주행 실증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민안전, 이해관계 등 다양한 문제를 대해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또 운수업체와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소통창구 역할과 시민홍보, 의견수렴도 진행한다. 자율주행 실증도시시는 국내 최초로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운영지구이자 규제특례가 적용되는 샌드박스로 지정하고, 국비 610억원을 투입해 자율차 200대를 올해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운영한다.

국토부는 현대자동차, 오토모티브에이부지, 라이드플렉스 등 3개사를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할 참여기업으로 선정하고, 국가자율주행자 시험운영지구 위원회 의결을 거쳐 광주 전체를 자율주행 시범운영지구로 지정했다.

정부는 지난 4월15일 대통령 주재 '규제합리위원회'에서 자율주행 실증도시에 최고 수준의 규제특례 환경을 조성하고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7개 지원 패키지(재정·금융·세제·인재·인프라·기술·창업·제도)를 지원한다. 인공지능(AD) 자율주행차 메가특구 조성계획을 발표했다.

자율주행 실증도시와 메가특구로 연계되면 자율주행 기술·부품·서비스 개발을 추진하는 기업과 스타트업 등이 광주에 집적돼 자율차 산업 생태계가 조성될 것으로 관측된다.

광주=정현진 기자 jcrso@siminilbo.co.kr

영암군, 장기요양 재택의료서비스 강화

지역 의원·한의원 협업체 재택의료센터로 확대 지역의료자원 연계 대상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

전남 영암군이 장기요양 수급자의 의료 접근성 강화를 위해 재택의료센터를 확대 운영한다.

군은 이일부터 지역 의원기관과 협력해 장기요양 재택의료서비스를 확대하고, 보다 훌륭한 지역 중심 돌봄체계 구축에 나선다. 영암군보건소는 지난 2025년부터 지역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를 직접 운영하며 거동이 불편한 장기요양 수급자 54명을 대상으로 방문의료와 방문간호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특히 군의 재택의료 운영 사례는 우수사례로 주목받아 경남 고성군 등 여러 지자체의 벤치마킹이 이어졌으며, 전남도도 현장찾아 운영성과를 확인하는 등 관

심을 보였다. 군은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기존 보건소 전담형 재택의료센터로 특화된한의원과 해당지역의 한의사와 협업체 재택의료센터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영암한국병원에 전담형 재택의료센터 운영을 준비하고 있어 서비스의 범위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군은 이번 확대 운영을 통해 대상자 건강 상태에 맞는 체계적인 의료서비스 제공과 지역 의료자원 연계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광주=정현진 기자 jcrso@siminilbo.co.kr

감성돔·점농어등 치어 1730만마리 방류

전남도, 올해 총 33억 투입 14개 시·군 순차적 진행

전남도는 수산양식 회복과 어민 소득 증대를 위해 올해 33억원을 들여 14개 시·군 연안에 수산종자 1730만마리를 방류한다. 방류 품종은 어촌계 수요조사를 거쳐 선정된 감성돔, 점농어, 대하, 꽃게, 꼬막, 해삼 등 총 15개 품종

이며, 생태 주기에 맞춰 12월까지 순차적으로 방류할 예정이다.

도는 1988년부터 지난 2025년까지 총 667억원을 들여 599만9000마리를 방류하며 해양생태계 보전과 어족자원 회복에 기여했다.

실제로 한국수산자원공단의 수산종자 부양 경제성 평가에 따르면 농어 3명, 감성돔 2명, 돌돔 19명의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수산종자 방류사업이 어업

인 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도는 방류사업의 객관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2007년부터 수산종자 방류효과 조사를 한국수산자원공단에 위탁하고 있다. 총회계 조사와 유전자 분석 등 과학적 기법을 활용해 연안·이종방류 방류효과를 분석함으로써 방류의 실용성을 체계적으로 검증하고 있다. 광주=정현진 기자 whng04@siminilbo.co.kr



자율주행 실증도시 협의회 출범식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순천시, 장애인 맞춤형 평생학습 확대

지역 내 기관·단체 17곳 선정 강사비등 최대 280만원 지원 음악·미술·공예등 프로그램 다채

전남 순천시 장애인의 평생학습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 강화

를 위해 '장애인 맞춤형 지역특화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본격 추진한다.

시는 지난 4월 공모를 통해 지역 내 장애인 기관·단체 17곳을 사업 참여기관으로 선정했으며, 기관별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강사료와 재료비는 최대 280만원까지 시가 직접 집행하는 방식으

로 추진한다. 각 기관은 장애 유형과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을 기획해 장애인의 학습권 확대에 사회참여 기반 확충에 나설 계획이다.

올해 사업은 단순한 교육 지원을 넘어 장애인들의 정서 안정과 자기관리 능력 향상, 나아가 지역사회 참여 확대까지 이어지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음악, 미술, 난타, 공예, 사진, 수영, 디지털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프로그램이 운영

예정이다. 프로그램 운영 강사는 오는 11월부터 15일 오후 6시까지 평생교육과 방문 또는 이메일로 접수하며, 시에 주민등록이 된 19세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17명 이내를 선발한다.

선발된 강사는 6월부터 11월까지 장애인 복지시설 등에 파견돼 장애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교육과 상담을 최대 40시간의 교육을 진행할다. 순천=최민석 기자 lms@siminilbo.co.kr

홍성군, 소득세 통합 신고창구 가동

내달 1일까지 2곳서 운영

지난 2025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를 위한 신고창구를 오는 6월1일 까지 충남 홍성군청 및 홍성세무서에서 운영한다.

군은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를 설치하고,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통합 신고창구를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신고 방법은 홈택스-위택스(인내넷), 손택스-위택스(모바일) 연계 신고와 서면 신고 등이 있으며, 국민민서(주부) 알뜰서비스를 활용해 개인별 납부세액·과징금 보 등을 포함한 맞춤형 모바일 안내도 제공할 계획이다.

서면 신고의 경우 전국 지자체에서 신고·납부가 가능하다.

'모두채움 신고서'는 단순결비를 적용 소규모 사업자, 종교인,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대상자 등을 위해 사전 안내문에 따라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미리 작성된 신고 내역을 납부서 형태로 발송하는 제도다. 납세자가 해당 내용을 작성하면 미정산액에 대해 별도 계좌로 세액을 납부하면 신고를 완료한 것으로 인정된다.

다만, 올해부터는 개인지방소득세 가산세 적용 특별 기한이 종료됨에 따라 납세자의 개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그동안은 종합소득

세(국세)를 신고하면 지방소득세 무신고 가산세가 면제됐으나 올해부터는 국세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지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한편 경영상 어려움 겪는 소규모 사업자와 유가 민감 업종, 플랫폼 미정산 피해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납부 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한다.

아울러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2개월 이내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 홍성=최민석 기자 cbg@siminilbo.co.kr

마을안길·배수로등 59곳 생활불편 정비

서산시, 2차 사업 2.9억 투입 1차 사업 포함해 내달 마무리

충남 서산시가 총사업비 2억 9000여만원을 투입해 2차 소규모 생활불편사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소규모 생활불편사업은 시민 다수의 편의를 위해 마을안길 보수,

농경지 주변 정비, 사고 위험지역 정비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시는 2차 사업 진행을 위해 지난 4월17일부터 27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해 사업 대상지를 접수했다. 시는 1곳당 사업비가 500만원 이하이면서 다음 주에 대상을 볼 수 있는 곳 59곳을 2차 사업 대상으로 선정했다. 마을안길 보수 23건, 배수로 정

비 28건, 기타 8건으로 현재 사업에 착수했으며 1차 사업과 함께 6월 말까지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앞으로도 사업 대상지를 발굴하고 읍·면·동별로 접수된 대상지 중 사업의 시급성과 타당성, 다수 혜택 여부 등을 고려해 해당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지난 3월부터 총사업비 5억7000여만원을 투입, 총 124곳을 대상으로 1차 소규모 생활불편사업을 추진 중이다. 서산=최민석 기자 cbg@siminilbo.co.kr

해남군, '이동친화환경 조성' 장관 표창

10개 부서 35개 사업 운영

전남 해남군이 어린이날을 맞아 아동복지와 환경 조성 유공 지자체 장관 표창을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어린이날을 기념해 아동의 보호, 안전, 권리 증진에 아동복지 향상에 기여한 지방자치단체를 발굴·포상함으로써 아동이 권리의 주체로 존중받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확립해 줄 때 장관 표창을 실시하고 있다.

군은 전남도내 유일하게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군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아동 인구가 감소와 사회환경 변화에 대응해 아동보호와 인성 교육 강화에 아동의 주체로 인식하는 정책 전환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왔다.

이를 위해 '해남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유니세프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제1차(2024~2027년) 아동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해 정책 비전과 추진체계를 구체화했다.

또한 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내무정책조정단을 구성·운영해 부서 간 협업을 강화하고, 10개 부서에서 참여하는 35개 중점사업을 추진하는 등 아동친화 정책을 전방위적으로 펼쳐 통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같은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로 군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획득했으며, 이번 장관 표창을 통해 아동친화도 정책 추진 성과에 대해적으로 인정받았다. 해남=정현진 기자 jcrso@siminilbo.co.kr

작은미술관 운영 조례 제정

신형군, 군민 대면로 김연

경남 신형군은 '작은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제정은 작고미술관의 체계적으로 안정적 운영과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조례에는 작은미술관의 기능과 운영 사항, 미술관 대관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특히 군민을 대상으로 대관료 감면 혜택에 포함해 있어 군민과 지역 단체의 경제적 부담 경감 뿐 아니라 문화 여가 활동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시민 운영 체제를 벗어나 민간인 정규 운영 체제로 전환할 계획이다. 신형=정현진 기자 lms@siminilbo.co.kr

간추린 뉴스

예산군, 9월까지 '하절기 비상방역체계'

충남 예산군보건소는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발생 위험이 높은 이달부터 9월 말까지 추석 연휴를 포함한 하절기 비상방역체계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은 콜레라, 장티푸스, 살모넬라감염 등 응급원인 질환이 식품 섭취 후 설사나 복통, 구토 등 위장관 증상이 나타나는 질환이며, 여름철 고온다습한 환경은 병원성 미생물 증식을 촉진하고 단체 모임과 휴가철 여행이 늘어나는 시기에 발생하는 위험도 높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군은 비상방역체제를 운영하고 함께 '찾아가는 어린이 감염병 예방교실', '경로당 손 씻기 교육' 등을 지속 추진하고 해충유인 트랩기 가동과 연막 사용 등 집중 방역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특히 감염병 예방을 위해 ▲호르몬은 물에 30초 이상 비누로 손 씻기 ▲음식 충분히 익혀 먹기 ▲물 끓여 마시기 ▲세제와 과일 깨끗이 씻어 먹기 ▲설사 증상 있을 경우 조리하지 않기 ▲도마와 칼 용도별 구분 사용 등 6대 예방수칙 실천을 강조했다. 예산=김희재 기자 kus@siminilbo.co.kr

진도군, 등산로등 국가지점번호판 조사 완료

전남 진도군은 최근 전남도와의 합동 조사를 통해 위생면 적절도와 원형보존 등산로 등 총 24곳의 국가지점번호판에 대한 일체 조사를 완료했다.

'국가지점번호'는 전국을 가로, 세로 10m 격자형으로 구획해 문자 간격과 숫자 8자리의 고유번호를 부여해 위치를 표시하는 위치표시 체계다. 또한 산악이나 해안가 등 비거주 지



드림하이 페스티벌 성료

충남 아산시시는 지난 5일 아산문화공원에서 2026년 제104회 어린이날 기념행사 '아산 드림하이 페스티벌'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이날 행사는 시민 5000여명이 참석했으며, 무대에는 다양한 공연이 펼쳐졌다. 사진은 행사에 참여한 어린이들이 제각기 선물을 하고 있는 모습.

연서서 조난 또는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구조 위치의 기준이 된다. 신속한 구조 작업을 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구축됐기 때문에 안전과 직결돼 있어 유지관리가 중요하다. 군 관계자는 "국가지점번호판은 위급 상황 시 군민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주소정보자료로, 앞으로도 국가지점번호판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도=정현진 기자 whng04@siminilbo.co.kr

장흥군, 12일 토요일장서 '마을세무사 상담창구'

전남 장흥군은 오는 12일 오전 10시부터 어 1시간 동안 장흥 토요일장서 상인의 사무실에서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상담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상담창구는 장남을 맞아 정동시장을 찾는 군민과 상인들을 대상으로 세무 관련 궁금증을 현장에서 직접 해결해주기 위해 마련했다.

평소 세무 상담이 어렵거나 비용 부담 등으로 전문 상담을 받기 힘든 주민들에게 무료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상담에는 장흥군 마을세무사인 안병호 세무사가 참여해 지방세와 국세 등 생활 속 세금 문제 전반에 대해 1대1 맞춤형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장흥시장 상인과 영세사업자, 고령층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군은 군민 누구나 쉽게 세무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장흥=정현진 기자 whng04@siminilbo.co.kr

강진군, 백운동 원림 국가유산 활용사업 호명

전남 강진군은 최근 선정된 소재 백운동원림에서 '2026년 생생 국가유산 활용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6월 6일에 따르면 강진을 대표하는 국가유산인 백운동 원림의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군민과 관광객이 전통 문화를 보다 가깝게 접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 백운동 원림은 자연과 인문정신이 조화를 이루는 강진의 대표적인 전통 원림으로, 오랜 세월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간직해 온 소중한 국가유산이다.

군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문화유산을 단순한 보존 대상에 머무르게 하지 않고, 군민과 방문객이 직접 느끼고 공감할 수 있는 살아있는 문화공간으로 풀어나는 데 중점을 뒀다. 이날 백운동 원림의 전통성과 문화적 가치를 고조시킬 수 있는 다양한 순서가 이어진 가운데 참가자들은 원림의 고즈넉한 경관 속에서 정동원림의 멋과 풍경을 느끼며, 백운동 원림에 담긴 역사성과 문화유산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강진=정현진 기자 jcrso@siminilbo.co.kr

보성군, 추분문화행사 어린이날 행사 성료

전남 보성군은 제104회 어린이날을 맞아 지난 5일 한국적문화공원 일원인 열림터 '제104회 어린이날 행사'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사)보성문화재단이 주최·주관했으며, '제49회 보성다문화축제'와 연계 추진돼 어린이와 가족 단위 관광객들 4000여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가족형 축제로 펼쳐졌다.

행사장에는 ▲국공 블록 만들기 ▲7키움 만들기 ▲인생테이블 촬영 ▲캐네이션 바꾸기 만들기 등 어린이들의 창의력과 감성을 자극할 수 있는 체험 부스가 운영됐으며, 부모와 아이가 함께 참여할 특별한 추억을 만드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어린이 참여형 프로그램인 '도전 골든볼'은 행사 분위기를 한층 뜨겁게 달궜다. 퀴즈를 통해 어린이들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됐으며, 1등에게는 전기자전거, 2등에게는 태블릿PC, 3등에게는 무선 헤드셋이 각각 수여됐다. 참가자 전원에게는 기념품도 제공돼 높은 참여 열기와 만족도를 이끌어냈다. 보성=정현진 기자 whng04@siminilbo.co.kr